

전라감영서 펼쳐지는 어린이들 역사 상상력

전주시, 어린이 역사문화 창작대회 '맞추랑께 그리랑께' 참가자 모집... 27일 프로그램 개최

전주시는 오는 27일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라감영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체험하고 향유하기 위한 '2026 전라감영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역사문화 창작대회인 '맞추랑께 그리랑께'를 개최한다.

'2026 전라감영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라감영을 단순히 관람하는 문화유산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는 △맞추랑께 그리랑께(백일장·사생대회) △모이랑께 가보장께(전주화약 시민참여재현) △부르랑께 취보랑께(시민 장기자랑) △담그랑께 나누랑께(시민 김장나눔행사) 등 연간 4회의 '전라감영의 날'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맞추랑께 그리랑께'는 '전라감영의 날'의 첫 번째 행사로, 어린이들이 전라감영에 담긴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창작 활동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역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전라감영 선화당 앞에서 운영 방식 안내와 함께 짧은 역사 단막극을 관람한 뒤, 전라감영 곳곳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부여받아 백일장 또는 사생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맞추랑께 그리랑께' 포스터

역사 교육이 아닌, 조선시대 전라도를 관찰하던 전라감영의 역할과 관찰사, 판관 등 다양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백일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생대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라감영을 직접 둘러보며 느낀 생각과 역사적 상상력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며, 행사 중에는 전라감영과 전주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OX퀴즈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장원(1등)과 방원(2등), 탐화(3등) 등 우수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장원에게는 아이패드, 방원에게는 애플워치, 탐화에게는 에어팟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백일장과 사생대회 참가자를 각각 1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문화예술공작소 온라인 신청 페이지(linktr.ee/culture__art)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전주화약 체결을 시민이 직접 재현하는 '모이랑께 가보장께'와 시민 장기자랑 프로그램인 '부르랑께 취보랑께'를 개최하고, 이어 11월에는 전통 김장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담그랑께 나누랑께'를 운영하는 등 전라감영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40년 역사·전통 '전국춘향미술대전'

남원시, 46명 수상자 선정... 이미정 작가 '종합대상'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한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이 전국 미술인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1차 전시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 2차 전시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시되며, 7월 4일 오후 2시에는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대전은 지난 40년간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며 한국 미술계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해 온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공예, 캘리그라피, 회화 등 6개 부문에서 총 486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뜨거운 창작 열기를 입증했다.

심사 결과 종합대상은 이미정 작가의 공예작품 '역동적 파도의 시간'이 선정, 부문 대상은 서양화 부문 김희옥 작가의 '해석된 꽃의 정원 1'과 캘리그라피 부문 한광수 작가의 '부고개'가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상 11점, 특별상 16점, 장려상 16점 등 총 46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어 미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취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명인사 심사위원장은 "이번 대전에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었다"라며, "예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작품성, 창의성, 완성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종합대상 이미정 작가 공예작품 '역동적 파도의 시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4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전국춘향미술대전에 귀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전국 작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대전이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전통예술놀이 한마당' 개최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환)이 공예민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 '고창 전통예술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6~28일 고창읍성 및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천연염색, 자수, 도예 등 고창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예체험' △다채로운 공연 및 전통놀이 등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전국 공예 작가들의 정성과 장인정신이 담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예마켓' 등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개최

26~28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300여명 전국 판소리 인재 참가

장수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7회 장수논개 전국 판소리경연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금당유형예술보존회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의 판소리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소리 실력과 기량을 선보이는 전국 규모의 전통문화예술 행사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를 비롯해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 등 참가자의 연령과 실력에 따라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39개 부문에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치며,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

공연에서는 판소리 심청가를 비롯해 단막창극,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예술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우리 소리의 깊은 멋과 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하공연에 이어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되고



제17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사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한 경품행사도 있으며 관련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의암 논개의 충절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장수에서 전국 규모의 판소리 경연대회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의 소리꾼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공연과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1차 티켓 예매 시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가 2026 소리축제 주요 공연 1차 티켓 예매를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공식 예매처를 통해 시작했다.

소리축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키워드로 전통예술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세대와 국경을 넘어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1차 티켓 예매 대상 공연은 판소리다섯바탕, 산조의 밤 '박대성, 박범훈', '월드뮤직-인도 요츠나 스리칸쓰, '한국X폴란드' 쇼팽&아리랑, 그리고 오늘의 시나위다.

판소리다섯바탕은 동시대 최고의 명창들이 선보이는 판소리 무대이며, 산조의 밤은 한국 전통 기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월드뮤직-인도 요츠나 스리칸쓰는 인도 전통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을 선사하며, '한국X폴란드' 쇼팽&아리랑은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

한다. 오늘날의 시나위는 전통 시나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진 음악인들의 무대로 새로운 음악적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마련된다. JB카드·NH농협카드 소지자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예매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민, 초·중·고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65세 이상 성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매는 공식 예매처인 NOL 티켓을 통해 진행되며, 공연별 세부 일정은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예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수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25회차를 맞는 소리축제는 전통예술의 가치와 동시대적 감각을 함께 담아낸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객들이 1차 티켓 예매를 통해 소리축제만의 특별한 공연을 미리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소리축제 2차 공연 티켓은 7월 13일 오후 1시 오픈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